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질솔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질솔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질솔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질흙으로 구워 만든 솔.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표기			
질솔			
질솔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질흙으로 구워 만든 솔.

①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 수록 용례

7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3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질솥'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질흙으로 구워 만든 솥.

☞ 질솥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질솥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질솥 사전 표기 요약	—	—	—	—	●→	●→
질솥 사전 표기 요약	—	—	—	—	—	●→
질솥ㅎ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질솥
19세기20세기
- 질솥
20세기현재

ㄱ 질솔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ㄷ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질솔’의 옛말인 ‘질숫’은 19세기부터 나타난다. ‘질숫’은 질그릇을 만드는 흙.

ㄱ 말의 구성과 어원

또는 그 흙으로 만든 질그릇의 흙바탕을 뜻하는 명사 ‘질’과 밥을 짓거나 국 따위를 끓이는 그릇을 뜻하는 명사 ‘숫’이 결합한 것이다.

ㄴ 표기와 소리의 특징

‘솔’은 15세기부터 자음 조사 앞에서는 ‘솔’, 모음 조사 앞에서는 ‘솔’으로 나타나는데 ‘질숫’의 ‘숫’은 16세기에 종성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된 이후에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것이다. 19세기에 나타나는 ‘질숫ㅎ’은 제2음절의 종성 ‘ㅈ’을 ‘ㅅ’과 ‘ㅎ’으로 나누어 표기한 것으로, ‘솔’의 종성을 이와 같이 표기한 것은 ‘숫ㅎ(솔)’, ‘밥숫ㅎ(밥솔)’에서도 확인된다. 제2음절의 종성이 ‘ㅌ’으로 표기된 ‘질솔’이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질솔

전체 용례 7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질숫, 질숫ㅎ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질숫, 질숫ㅎ

출처 1880 한불사전 566

용례 01

66 문헌 용례

질솟 [土鼎].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86 잠상집요 21 ㄱ

용례 02

66 문헌 용례

젓물을 질솟헤 싼여 고치을 우희 고로게 쏘여 슈추 허친 후에 고치 담은 체을 질솟 우희 언고.

現代어 풀이

젓물을 질솟에서 끓여 고치를 위에 고르게 뿌려 수차례 흘뜨린 후에 고치 담은 체를 질솟 위에 얹고.

출처 1896 국한회어 곤:282

용례 03

66 문헌 용례

질솟 [土鼎].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질솟, 질술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질솟, 질술

출처 1908 귀의성 하:85

용례 04

66 문헌 용례

서 돈싸리 질솟을 붓쳐 낫코 그 솟 속에 드러갈 쌀 혼 줌이 업시 안젧시니 여긔 와서 굴머 죽을
줄 누가 아랏든 말이오.

現代어 풀이

서 돈짜리 질솟을 부쳐 놓고 그 솟 속에 들어갈 쌀 한 줌이 없이 앉아 있으니 여긔 와서 끓여 죽을 줄 누가 알았던 말
이오.

출처 1930 별건곤 제33호 164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움집 左右로는 貧民窟에 相當한 쟁갯이 살림 나부랭이가 여기저기 노혀 잇고 거죽문에서 左便 업흐로 조금 당기어 질숯(土釜)이 걸닌 날근 생철 화덕이 有標하게 보이고.

㉮ 현대어 풀이

움집 좌우로는 빈민굴에 어울릴 법한 쟁개비 살림 나부랭이가 여기저기 놓여 있고 거적문에서 왼쪽 옆으로 조금 당기어 질솔이 걸린 낡은 생철 화덕이 유표하게 보이고.

출처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용례 06

66 문헌 용례

질솔.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57 큰사전

용례 07

66 문헌 용례

질솔.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질솔 관련 낱말



- 솥명사불에 올려 밥을 짓거나 음식을 끓이는 데 쓰는, 쇠불이 등으로 만든 큰 그릇.관련된 말의 뜻기초사전에서 읽기

뜻풀이: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질솔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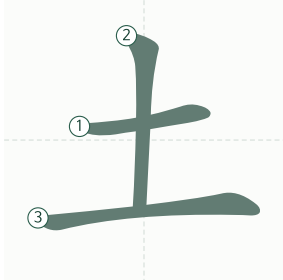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질솔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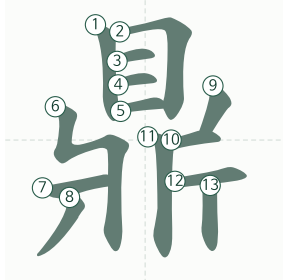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土 뜻·음 흙 토
총 3획 · 부수 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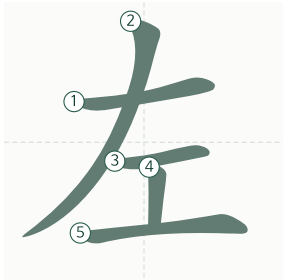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土/

鼎 뜻·음 솥 정
총 13획 · 부수 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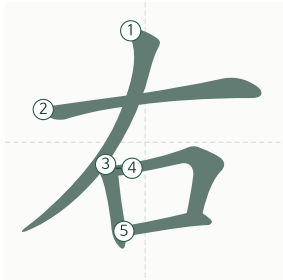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鼎/

左 뜻·음 왼 좌
총 5획 · 부수 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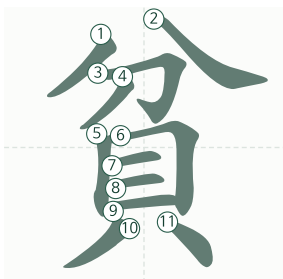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左/

右 뜻·음 오른·오른(쪽) 우
총 5획 · 부수 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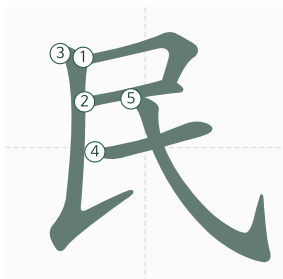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右/

貧 뜻·음 가난할 빈
총 11획 · 부수 貝

hanja.wordrow.kr/한자/貧/

民 뜻·음 백성 민
총 5획 · 부수 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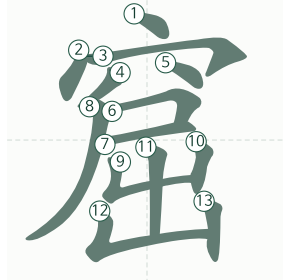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民/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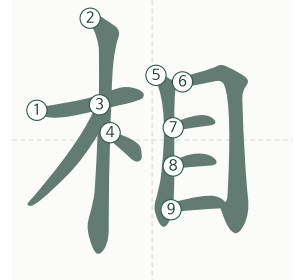
뜻·음 굴 굴
총 13획 · 부수 穴



hanja.wordrow.kr/한자/窟/

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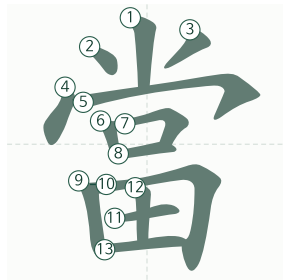
뜻·음 서로 상
총 9획 · 부수 目



hanja.wordrow.kr/한자/相/

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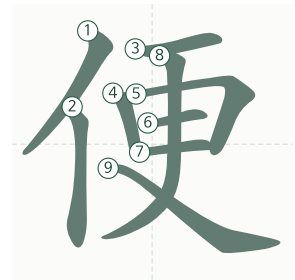
뜻·음 마땅 당
총 13획 · 부수 田



hanja.wordrow.kr/한자/當/

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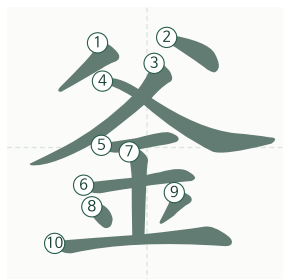
뜻·음 편할 편 / 똥오줌 변
총 9획 · 부수 人



hanja.wordrow.kr/한자/便/

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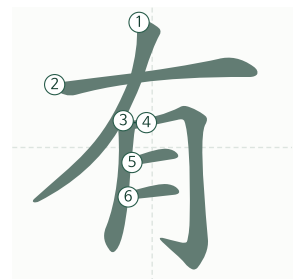
뜻·음 가마[鬲] 부
총 10획 · 부수 金



hanja.wordrow.kr/한자/釜/

有

뜻·음 있을 유
총 6획 · 부수 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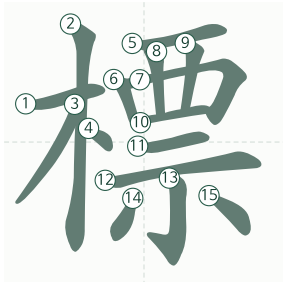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有/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標

뜻·음 표할 표
총 15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標/